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광덕이 「원왕생가」를 지은 까닭은?

#### 1. 광덕과 업장

부다는 수행자에게 김동무[道伴]는 삶의 전부라고 역설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같은 길을 걷는 이가 제일의 벗이 된다. 수행자에게는 스승과 도량과 도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셋 중에서 도반은 수행의 도정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좋은 벗[善友]이자 좋은 스승[善知識]이어야 한다. 때문에 도반은 인생의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고구신앙과 불교신앙이 일전(一戰)을 치르고 난 뒤 불교를 수용하여 절저히 자기화하였다. 도술전에 머무르는 미륵보살을 신라사후 속으로 불러 내렸고, 백제 공주 수원사까지 찾아가 미륵신화를 신라로 데려왔다. 또 환룡사를 역사적 부딘이 석가모니불이 설법하기 이전에 이미 가섭불이 와서 설법하던 곳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 국민이 믿게 하였다. 그리고 이웃의 아홉 나라가 신라에 복속해 오게 하기 위하여 환룡사에 구름탑을 세웠다. 나아가 불국사를 세우고 석불사 본존불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정지들을 통해 그들은 신라를 불국정도로 만들었다.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업장은 그 남쪽 자락[南岳]에 암자를 짓고 화전농사[大種刀耕]에 힘쓰며 살았다. 여기서 남악은 지금의 경주 남산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종'은 '화중'의 오기로 보인다. '화중도경'(火種刀耕)은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숲의 나무를 베어 불을 사른 뒤 재가 되고 나면 씨를 뿌리는 농법으로 짐작된다. 광덕과 업장 두 사람은 우애가 깊어 밤낮으로 약속하였다. "누구든 먼저 안양(安養)으로 가거든 서로 알리세." 하루는 석양이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업장의 집 장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제 서방(극락)으로 가네.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게나." 업장이 문을 열고 나가 둘러보니 구름 위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밝은 빛이 땅에까지 뻗었다. 다음날 업장이 광덕의 집을 찾아갔더니 과연 광덕이 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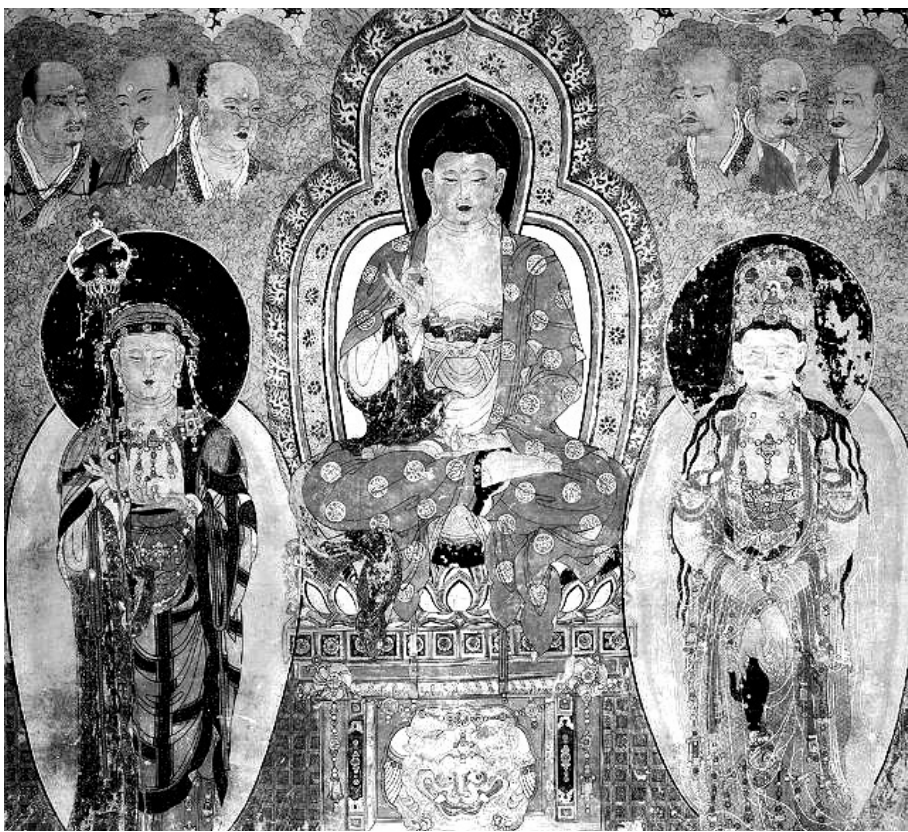
#### 광덕, 극락가기를 기원해 지어 수십년 아내 멀리하며 청정행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무덤을 만들고 장사[蒿里,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모두 이곳으로 간다는 중국 태산 남쪽의 땅이름]를 같이 지냈다.

#### 2. 욕망을 이겨내는 것

장사를 다 마치고 업장이 광덕의 부인에게 말했다.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처가 이를 허락하고 업장의 집에 머물렀다. 밤이 되어 (그가) 정을 통하려 하자, 광덕의 처가 듣지 않으면서 말하였다. "스님이 정토를 구하는 것은 가히 물고기를 잡으며 부처님의 대좌를 관상하는 화좌관(華座觀), 8) 형상과 관상하는데 나타나는 금색상을 관상하는 삼관(象觀), 9) 진정한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진신관(眞身觀), 10) 관음보살을 관상하는 관음관(觀音觀), 11) 세지보살을 관상하는 세지관(勢至觀), 12) 극락의 주보인 아미타불과 그를 둘러싼 온갖 것을 관상하는 보관(寶觀), 13) 우둔한 이를 위하여 1장 6척의 아미타불상을 관상하게 하는 잡상관(雜相觀), 14)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상배관(上輩觀), 15) 중치리들이 관상하는 중배관(中輩觀), 16)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하배관(下輩觀)이 있다. 14관 이하는 각각 자기의 감남에 따라 적당한 행업으로 왕생할 것을 관상하는 수행법이다. 아마도 광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닦는 선근인 앞의 정선(定善)의 13관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도의 국토(國土)와 상중(上衆) 등의 모양을 관상하는 수행을 닦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이 13관에 뒤의 악을 없애고 선을 닦는[散善

# 노래로 왕생극락을 간절히 기원



국보 제313호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도'. 광덕은 아미타 16관법으로 서방정도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에 태어난 중생들을 위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나는 한 방편으로 제시한 수행법이다. 1) 떨어지는 해를 보아서 극락정도를 관상하는 일관(日觀) 또는 일상관(日想觀), 2) 극락의 대지가 넓고 평탄함을 물과 얼음에 비교하는 수관(水觀) 혹은 수상관(水想觀), 3) 분명하게 극락의 대지를 관상하는 지상관(地想觀), 4) 극락에 있는 보수의 묘용을 관상하는 보수관(寶樹觀), 5) 극락에 있는 연못의 여덟 공덕수의 묘용을 관상하는 보지관(寶池觀), 6) 극락의 오백여 보루각을 관상하는 보루관(寶樓觀), 7) 칠보로 장식한 부처님의 대좌를 관상하는 화좌관(華座觀), 8) 형상과 관상하는데 나타나는 금색상을 관상하는 삼관(象觀), 9) 진정한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진신관(眞身觀), 10) 관음보살을 관상하는 관음관(觀音觀), 11) 세지보살을 관상하는 세지관(勢至觀), 12) 극락의 주보인 아미타불과 그를 둘러싼 온갖 것을 관상하는 보관(寶觀), 13) 우둔한 이를 위하여 1장 6척의 아미타불상을 관상하게 하는 잡상관(雜相觀), 14)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상배관(上輩觀), 15) 중치리들이 관상하는 중배관(中輩觀), 16)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하배관(下輩觀)이 있다. 14관 이하는 각각 자기의 감남에 따라 적당한 행업으로 왕생할 것을 관상하는 수행법이다. 아마도 광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닦는 선근인 앞의 정선(定善)의 13관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도의 국토(國土)와 상중(上衆) 등의 모양을 관상하는 수행을 닦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이 13관에 뒤의 악을 없애고 선을 닦는[散善

인신(人身) 즉 거토부녀신(居士婦女身)에 해당한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하면 33관음 응신에 대한 19살법상의 일신(一身)으로 해석되며, 『불상도회』에 의하면 바위에 기대고 바다를 향하여 정적(靜寂)한 모양을 보이는 19번째의 능정관음(能靜觀音)에 해당된다. 이처럼 신라를 불국정도를 만들며 이곳을 미타정도로 삼았던 신라의 수행자들에게 여인들은 관음보살 혹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현신하였다.

#### 3. 「원왕생가」의 해석

광덕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원왕생가」를 지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작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광덕 업장' 조목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심구응신지일덕(蓋十九應身之一德) / 상유가운(嘗有歌云)'으로 끊어 읽으면 '일덕'은 관

#### 아미타 16관법으로 왕생 도반 업장도 대분심, 정도행

음응신을 가리키므로 광덕의 아내(오구라, 양주동, 김중우, 김진기)가 되고, "개심구응신지일(蓋十九應身之一) / 덕상유가운(德嘗有歌云)"으로 끊어 읽으면 '덕'은 광덕을 일컬으므로 광덕(김동욱, 박노준, 황배강, 조동일)이 된다. 또한 '유가(有歌)와 '작가(作家)가 의미가 틀리다는 입장에서 원효 작자설(김사엽)과 작자 실명설(최철 등)이 주장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광덕설이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여러 맥락으로 볼 때 이 노래는 광덕이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더 크다.

"달님, 이제 서방으로 가시어/ 무량수불 앞에 말씀 가져다 전해주소/ 다짐 깊으신 부처님 우리러 두 손 모아 비오나니/ 원왕생(願往生) 원왕생 바치오니/ 그리워하는 사람 있나 하소서/ 아아, 이몸 버리시고/ 마흔여덟 큰 소원/ 모두 이루어질까? (양주동 역) 이 시의 어세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저역(伊底亦)에 대해 무에 양주동은 '이제'로 보았다. 이와 달리 김완진은 '어째서'로 풀고 있다. 부사 '이제'와 의문사 '어째서'는 이 시의 뜻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김완진은 '이제=이제', '이적'으로 보는 것이 근사(近似)한 해독(解讀)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사한 데 그치는 독법(讀法)이 두 가지 난점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해서 그는 "달이 어째서/ 서방(西方)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전(無量壽佛前)에/ 보고(報告)의 말씀 빼지않고 사뢰소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리러 바라보며/ 원왕생(願往生) 원왕생(願往生) / 두 손 곧추 모아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

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四十八代願) 이루실까."라고 읊고 있다. (김완진 역) 하지만 그와 신재홍(애오라지, 아예)을 제외한 모든 학자들은 '이제'로 보고 있다. '이제'로 푸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수행자인 광덕의 가장 큰 장애는 아내와의 세속적 관계였다. 그는 아내와 10년을 살면서도 한 자리에 놓지도 않았다. 부부로서 한 집안에 살면서 살조차 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범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범부와 같은 세속적 삶을 원했다면 그는 애초부터 독신을 고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수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극락정도에 왕생하는 열 여섯 가지 수행법을 닦아야만 했다. 광덕은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반듯이 앉아서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외면서 16관을 지었다. 광범이 이미 잘 이루어지자 달빛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빛 위로 올라가 그 위에서 가부좌를 하였다. "정성을 이만큼 하고서도 서방정도에 아니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아내의 얘기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광덕은 달님을 통해 본래 국왕이었다가 발심 출가한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世子在王佛)에게 48원을 세우고 역조 영검의 수행을 성취한 뒤 아미타불이 된 무량수불에게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 하는 이 있다고 사뢰어 줄 것을 소망한다. 법장비구(法藏比丘)가 세운 사십 팔대원은 크게 범심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원(攝法身願, 제12, 13, 17 원), 정토를 장엄하고 싶어하는 원(攝淨土願, 제31, 32원),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구제하고 싶어하는 원(攝眾生願, 나머지 43 원)으로 요약된다. 광덕은 달님에게 아미타불이 자신을 남겨두고 사십팔대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 반문한다. 그만큼 그의 수행은 간절하였다. 그렇게 무량수불에게 기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니 광덕의 원대로 왕생할 수 있었다. 「원왕생가」의 바람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의 도반 업장 역시 광덕 부인의 도움으로 대분심(大信心)을 발휘하고 원효법사의 도움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도를 닦아서 서방정도로 올라갔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완진, 『항가해독본연 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이범고,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2005; 2007).  
 고영섭,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